

2018 EBS 수능특강 문학 변형문제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을 이용해 주세요.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시, 저작권법에 의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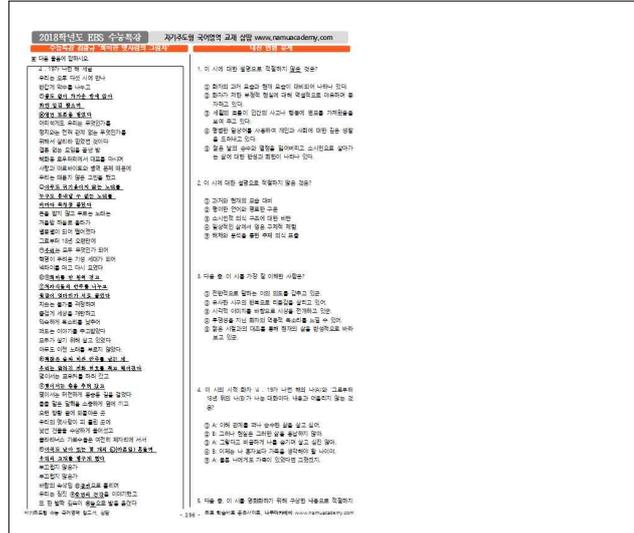
적용학습 (고전시가)

이 참고서의 구성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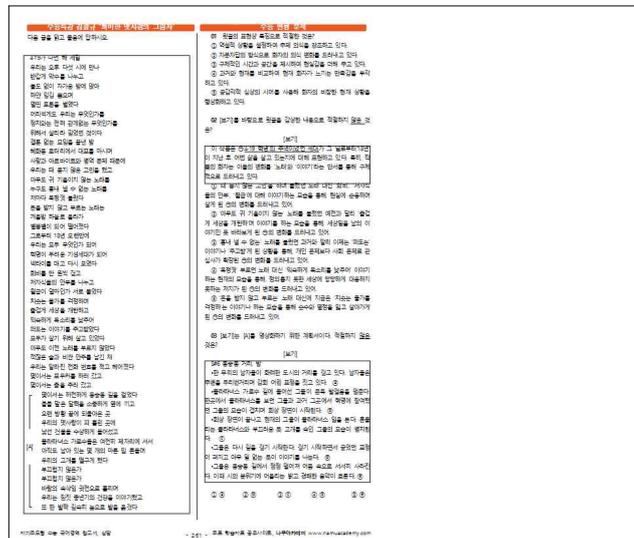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 문제집

총론

- 이 참고서는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 문제를 방대하게 구성하였다. (현대시편, 350여 페이지)
- 문제를 수능용과 일반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용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 언제든지 모르는 사항을 홈페이지 www.namuacademy.com를 통하여 질문할 수 있다.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변형교재 시리즈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해설서 (운문문학)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해설서 (산문문학)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변형문제집 (운문문학)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변형문제집 (산문문학)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 문제집의 특징 1
| 일반 문제를 구성하여 입시생들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 문제집의 특징 2
| 수능용 문제를 구성하여 교육청, 평가원, 수능 모의고사와 본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참고서의 차례

2018 ebs 수능특강 변형문제집

I 적용학습 (고전시가)

- 1) 황조가 P 5
- 2) 동동 P 23
- 3) 제망매가 P 38
- 4) 정과정 P 53
- 5) 동짓달 기난긴 P 69
- 6)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P 80
- 7) 댁들에 동난지이 P 86
- 8) 추강에 밤이 드니 P 90
- 9) 냇가에 해오라바 P 98
- 10) 가노라 삼각산아 P 102
- 11) 눈 맞아 휘어진 대를 P 104
- 12) 사유가 P 107
- 13) 두터비 파리를 물고 P 113
- 14) 오류가 P 119
- 15) 훈민가 P 127
- 16) 만흥 P 137
- 17) 서검을 못 일우고 P 158
- 18) 안빈을 염치 말아 P 164
- 19) 서방님 병 들여두고 P 168
- 20) 누항사 P 174
- 21) 상춘곡 P 198
- 22) 사미인곡 P 216
- 23) 북찬가 P 235
- 24) 무어별 P 241
- 25) 마음이 어린 후에 P 251
- 26) 개를 여러문이나 P 258
- 27) 소춘향가 P 264
- 28) 잠노래 P 268
- 29) 베틀 노래 P 277

고전시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翩翩黃鳥	㉠(훨훨 나는 ㉡꾀꾀리는
雌雄相依	암수 다정히 즐기는데,)
念我之獨	외로울사 이 내 몸은
誰其與歸	㉢늬와 함께 돌아갈꼬.
	<삼국사기(三國史記)>

1.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고구려 시대에 불린 노래이다.
- ③ 유리왕 설화에 삽입된 가요이다.
- ④ 현전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개인적인 서정시다.
- ⑤ 먼저 시적 화자의 감흥을 드러낸 후 자연물을 감상하고 있다

2.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초의 개인적인 창작 서사시이다.
- ② 현전하는 최고의 서정시이다.
- ③ 귀족문화의 성격을 보여주는 노래이다.
- ④ 부족 국가 형성기의 집단적 서사 문화이다.
- ⑤ 선경 후정의 구조를 지닌 독립적 한시이다.

3.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역되어 전한다.
- ② 개인적인 감정을 읊고 있다.
- ③ 집단 가무적 성격을 지닌다.
- ④ 배경설화에 삽입되어 전한다.
- ⑤ 동물을 시 속에 등장시키고 있다.

4. 이 노래를 통해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화자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 ② 시적화자는 새를 너무 좋아한다.
- ③ 시적 화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
- ④ 시적화자는 꾀꾀리를 부러워하고 있다.
- ⑤ 시적화자는 혼자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허전해하고 있다.

5. 이 노래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민요적 시가
- ② 주술적 서사시
- ③ 우의적 수법을 사용
- ④ 순박한 서정의 표현
- ⑤ 설화속의 삼입 가요

6. 이 노래와 유사한 표현 기법을 사용한 것은?

- ① 희곡은 해설, 지문, 대사로 구분된다.
- ② 미술과 건축은 공간 예술이며 음악은 시간 예술이다.
- ③ 한국어, 만주어, 몽골어, 터키어 등은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이다.
- ④ 한 사회를 다른 사회와 구별짓는 의미로 사용할 때, 문화란 말은 평가적 의미를 가리킨다.
- ⑤ 벌써 유리창에 날벌떼처럼 매달리고 미끄러지고 영키고 또그르 궁글고 흠이 지고 한다.

7. 이 노래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별의 외로움을 독백을 통해 토로하고 있다.
- ② 화자의 감정을 우의적 수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간절한 어조로 나타내고 있다.
- ④ 화자와 대비되는 사물을 등장 시켜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직설적인 어투로 표현하고 있다.

8. 이 노래의 시상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경에서 근경으로
- ② 소재의 이동에 따라
- ③ 여행의 노정에 따라
- ④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 ⑤ 심리적 변화의 추이에 따라

9. 이 노래가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심오한 사상적 배경
- ② 표기 방식의 친숙함

- ③ 인간의 보편적 정서
- ④ 세련되고 정제된 시형식
- ⑤ 고도의 상징과 비유에 의한 표현

10. 이 노래가 '구지가'와 다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 ① 집단적 성격의 노래이다.
- ② 개인적 정서가 들어난다.
- ③ 주술적인 소망을 담고 있다.
- ④ 설화의 핵심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 ⑤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여 드러내고 있다.

11.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짝 잃은 기러기 같다.
- ② 정승도 저 싫으면 안 한다.
- ③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이다.
- ④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⑤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12. 이 노래를 바탕으로 연극을 공연할 때, 연출자가 시적 화자를 연기하는 사람에게 요구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실과 자아의 내면 의식의 대립이 잘 드러나게 연기하도록 요구한다.
- ②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인물로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 ③ 혼자 남겨져 있음을 실감하는 정서적 상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 ④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강인한 의지가 드러나게 연기하도록 요구한다.
- ⑤ 실연의 아픔이라는 감정을 섬세한 표정 연기로 드러내도록 요구한다.

13. 이 노래를 고구려 건국 과정과 결부지어 집단적인 서사시의 일부로 본다면, 그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죽은 왕비에 대한 그리움
- ② 부족 사이의 대립과 갈등
- ③ 왕위 계승 과정에서의 갈등
- ④ 혼인에 대한 부족간의 화해와 국가 권력의 확대
- ⑤ 국가 형성 초기의 부족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번뇌

14. <보기>의 () 안에 들어갈 화자의 주된 정서로 알맞은 것은?

보기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상심에 잠긴 화자 앞에 짝을 이루어 정답게 놀며 즐기는 꾀꼬리는 돌아갈 사람이 없는 시적화자의 ()을 증폭시킨다.

- ① 아쉬움 ② 비애감 ③ 무상감
- ④ 절박감 ⑤ 고달픔

15. <보기> 노래의 화자가 이 노래의 화자에게 했음직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임을 어이할꼬.

- ① 방황하지 말고 빨리 임을 찾아보세요.
- ② 당신에게 남아 있는 부인이 있으니 괜찮아요.
- ③ 정말 사랑했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 주세요.
- ④ 떠난 사람에게 미련을 갖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이에요.
- ⑤ 당신의 임은 죽지 않았으니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16.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
- ② 끝없는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
- ③ 실연의 슬픔을 환기시켜 주는 존재
- ④ 포근한 감정을 느끼게 해 주는 존재
- ⑤ 화자의 감정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17. 이 노래에 나타난 ㉠의 의미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화자의 처지와 대립적인 존재
- ② 정답게 사랑을 나누는 자연물
- ③ 밝고 동적인 이미지를 지니 존재
- ④ 밝은 미래를 향해 새 힘을 솟게 하는 존재
- ⑤ 화자의 외로움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는 존재

18. ㉠에 들어난 정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본딤 내해다마른 아사놀 엇디 흐릿고.
- ② 나는 가늌다 맞도 묻다 니르고 가늌닛고.
- ③ 물에 쓸려 돌아사시니, 가신 임을 어이할꼬.
- ④ 돌흐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 ⑤ 날러는 엇디 살라 흐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19. ㉡에 대한 화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별한 임이 보고 싶구나.
- ② 임이 가버린 현실이 얼마나 쓸쓸한지.
- ③ 나와 반대로 참으로 정다워 보니는구나.
- ④ 임에게 잘못해준 것이 영 마음에 걸리는군.
- ⑤ 임과 함께 정답게 지냈던 옛날이 생각나는군.

20. 시가 문학의 발달 과정을 고려할 때, 이 노래가 지닌 문
학사적 의의를 간단히 쓰시오.

21. 이 노래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요약한 말을 한역시에
서 찾아 1음절로 쓰시오.

22. 화자의 슬프고도 외로운 심정이 가장 고조되어 나타난
시구를 찾아 쓰시오.

23. 이 노래의 한시(漢詩)에서 화자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제
시하고 있는 한자를 찾아 쓰시오.

- 1) ⑤
먼저 자연물에 의탁하여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나중에 자신의 외로운 감정을 노래하였다.
- 2) ②
집단적 서사문학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오는 시기의 작품이다.
- 3) ③
이 노래는 개인적인 체험과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이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모두 배경 속에 한역되어 전하고, 동물이 등장한다.③은 구지가와 같이 집단적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서사시의 특성이다.
- 4) ②
새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지 새를 유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 5) ②
이 노래는 꾀꼬리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들어내고 있는 서정적인 노래이다.
- 6) ②
대상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대조하고 있는 것은? ②이다.
- 7) ⑤
이 노래는 이별의 슬픔과 고독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8) ④
먼저 자연 물에 의지해 시상을 일으킨 후 나중에 자신의 감회를 펼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 9) ③
시대를 초월한 문학의 영원성은 인간의보편적 정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10) ②
- 11) ⑤
이 노래는 이별의 슬픔과 고독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12) ④
시적 화자의고 독감이 그려져 있으며 극복의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 13) ⑤
이 노래가 표면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노래인데, 유리왕이 동명왕 신화에도 관련된 고구려 초기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두 왕비의 이름이 '평'과 '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 건국 초기의 부족관의 갈등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 ②는 ⑤에 비해 화자의정서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 14) ②
이 작품은 꾀꼬리를 매개로 화자의 외로움과 비애감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 15) ⑤
두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 이별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이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차이를 보인다.
- 16) ③
- 17) ④
꾀꼬리는 화자와 대립된 처지(정답게 암수가 날고 있음)s- 있다. 그래서 화자의 비애를 더 고조시킨다. 그런 꾀꼬리를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④는 잘못된 것이다.
- 18) ④
㉠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일종의 탄식이고 절망감의 표현이다. ④는 간절한 소망의 정서이다.
- 19) ④
꾀꼬리는 화자인 '나'의 처지와 상반되는 자연무루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한층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 20) 집단적 서사 문학에서 개인적 서정문학으로 옮겨가는 단계의 작품이다.
- 21) 독(獨) 화자의 정서는 짝을 잃은 자의 외로움, 슬픔이다. 한역에서는 '獨'으로 되어있다.
- 22) 뉘와 함께 돌아가리.
- 23) 獨(독)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휙휙 나는 □궂궂리□는
 암수 다정히 노니는데,
 ▶ 암수 궂궂리의 정다움(1,2구)-선경(先景)
 외로울사 이 내 몸은
 누와 함께 돌아가리
 ▶ 임을 잃은 외로움(3,4구)-후정(後情)
 ㉠翩翩¹⁾ ㉡黃鳥²⁾(편편황조)
 ㉢雌雄³⁾相依(자웅상)
 念我之 ㉣獨(염아지독)
 ㉤誰其與歸(수기여귀)
 [어휘 풀이] 1) 翩翩(편편): 펄펄, 가볍게 나는 모양, 의태어
 2) 黃鳥(황조): 궂궂리 3) 雌雄(자웅): 암컷과 수컷

1.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경 설화에 삽입된 개인적 서정 가요이다.
 - ② 시적 화자는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고대 가요 중 작자와 창작 연대가 분명한 작품이다.
 - ④ 시적 화자의 처지를 자연물과 대비시켜 슬픔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 ⑤ 집단적 서사 문학에서 개인적 서정 문학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작품이다.

2. 이 노래의 제재로 적절한 것은?
 - ① 동경
 - ② 연정
 - ③ 이별
 - ④ 질투
 - ⑤ 회한

3. 이 노래의 어조상의 특징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 ① 체념과 비탄의 어조
 - ② 후회와 탄식의 어조
 - ③ 각성과 깨달음의 어조
 - ④ 미련과 아쉬움의 어조
 - ⑤ 의지와 기다림의 어조

4. 이 노래의 중심 정서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고독함
 - ② 그리움
 - ③ 쓸쓸함
 - ④ 외로움
 - ⑤ 정다움

5. 다음은 이 노래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시적화자는 '궂궂리'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어.
 - ② 혼자 남은 시적화자의 외로움이 중심 정서를 이루고 있네.
 - ③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어.
 - ④ '궂궂리'는 시적화자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⑤ 먼저 자연현상을 내세우고 뒤에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6. 이 노래의 표현상 특징은?
 - ① 대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자연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심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상을 풍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장면을 해학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7. 이 노래에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수사법은?
 - ① 과장법
 - ② 대조법
 - ③ 은유법
 - ④ 역설법
 - ⑤ 점층법

8. 배경 설화와 관련하여 이 노래를 집단적인 서사시의 일부로 본다면, 그 주제로 알맞은 것은?
 - ① 옹혼한 민족 기상의 과시
 - ② 혼인에 의한 두 종족의 화해
 - ③ 왕권이 미약한 현실에 대한 비판
 - ④ 종족 집단의 단결과 화해의 모색
 - ⑤ 종족 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오는 고뇌와 번민

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翩翩(편편):의태어
 - ② ㉡黃鳥(황조):중심 소재
 - ③ ㉢雌雄(자웅):승부 가르기
 - ④ ㉣獨(독):임과 이별한 외로움
 - ⑤ ㉤誰(수):의문사

10. 이 노래의 한역시에서 대조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시어를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翩翩 - 黃鳥
- ② 黃鳥 - 雌雄
- ③ 相依 - 獨
- ④ 我 - 獨
- ⑤ 念我 - 誰

11. 이 노래에서 시적화자의 정서를 요약하였다고 볼 수 있는 한 글자를 한역시에서 찾아 쓰시오.

12. □궤꼬리□에 대한 시적화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너희들이 마냥 부럽기만 하구나.
- ② 홀로 남은 내가 더욱 쓸쓸해지는군.
- ③ 마치 떠나간 내 입을 보는 듯 반갑구나.
- ④ 떠난 입이 더욱 간절히 보고 싶어지는군.
- ⑤ 나도 한때는 너희들처럼 정다운 입이 있었지.

13. 다음 밑줄 친 말 중, □궤꼬리□와 시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사월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궤꼬리새여.
므슴다 녹사니른 넷 나를 니고신더.
- ② 우러아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 ③ 우난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어촌(漁村) 두 어집이 넷 속의 날낙들낙
말가한 기픈 소희 온갈 고기 뛰노나다.
- ④ 지당(池塘)에 비 뿌리고 양류(楊柳)에 너 끼인 제
사공(沙工)은 어디 가고 뷔 빅만 빅였는고.
석양에 짝 일흔 궤꼬리는 오락가락 흐노매.
- ⑤ 내 님을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 절동새 난 이숯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들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라시리이다.

14. <보기>는 <공무도하가>이다. <황조가>와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예 물을 건너시고 말았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입을 어이할꼬.

- ① 모두 사랑과 이별을 제재로 하고 있다.
- ② 두 작품 모두 가무(歌舞)를 동반한 집단 의식요이다.
- ③ <공무도하가>는 '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황조가>는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 시적화자의정서를 극대화하고 있다.
- ⑤ 주된 정서가 고려 속요 <가시리>와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정서와 통하는 면이 있다.

15. 이 노래와 <보기>의 공통점을 가장 잘 지적한 것

보기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뫼헤 매게 쪼친 가토리
안과,
大川(대전)바다 한 가운데 一天石(일천석)시른빅
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농총도 근코 돛대 도
것고 치도 싸지고, 바람 부러 물결치고 안 개
뒤섯게 츠자진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 (천 리
만리) 나문디 四面(사면)이 거머어득 저못 天
地寂寞(천지적막) 가치노을 췌논딕, 水賊(수
적) 만난 都沙工(도사공)의 안과,
엇그제 님 여힌 내 안이야 엇다가 ㄱ을호리오.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은?

- ① 현실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담고 있다.
- ② 자연물을 이용한 다양한 비유를 하고 있다.
- ③ 선경후정(先景後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④ 시적화자와 동일시되는 사물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임과 헤어진 상황이 시작(詩作)동기가 되고 있다.

16. <보기>는 <정읍사>의 일부이다. <정읍사>와 <황

보기

달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내려신고요.
어기야 즌딕를 드딕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조가>의 공통적인 시작(詩作) 동기는?

- ① 재회에 대한 갈망(渴望)
- ② 이상향에 대한 동경(憧憬)

- ③ 절대자에 대한 외경(畏敬)
- ④ 사랑하는 대상의 부재(不在)
- ⑤ 괴로운 현실에서의 도피(逃避)

17. 다음 <보기>는 고려 속요 <청산별곡>의 일부이다. 이 부분과 <황조가>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정서를

보기

이링공 더링공 햏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쫓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두 음절의 한자어로 쓰시오.

18. 이 노래에 나타난 시적화자의 상황이나 심정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 위 증
즐가 내평성대
- ② 비 갠 언덕에 풀빛이 푸른데 / 그대 보내는 남포에서 슬픈
노래 부르며 흐느끼네.
- ③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드냐 / 이시라 햏더면 가라마
제 구태여 /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햏노라
- ④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 일지춘심을 자규야
아라마는 / 다정도 병인냥햏여 줌 못드러 햏노라
- ⑤ 이화우 햏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햏 님 /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 가 /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햏노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 이 작품은 먼저 자연 현상을 내세우고 뒤에 시적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O, X)

20. 이 작품에서 □ □ □ □ □ □은 (는) 시적화자의 서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21. 시적화자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자는 '□ □'이다.

22. 이 작품에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수사법은 대조법이다. (O, X)

23. 이 작품은 집단적 서사 문학에서 □ □ □ □적 서정 문학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과도기적 작품으로 보고 있다.

- 1) 답] ② [해] 이 노래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2) [답] ③ [해] 이 노래는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에서 오는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 3) [답] ① [해] 4구인 '늬와 함께 돌아가리'에서 체념과 비탄이라는 어조상의 특징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4) [답]⑤ [해] 시적화자는 임을 잃은 상황에 있다. 이 상황에서 정다움은 중심 정서가 될 수 없다.
- 5) [답] ① [해] 여기서 꾀꼬리는 시적화자와 대조되는 존재이지 동일시의 대상은 아니다.
- 6) [답] ③ [해] 이 노래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접 드러내고 있다.
- 7) [답] ② [해] 시적화자는 홀로 남은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해 암수가 다정히 노니는 꾀꼬리와 자신을 대조하고 있다.
- 8) [답] ⑤ [해]배경 설화에 따르면 고구려 유리왕의 두 계비 화희와 치희는 각기 다른 나라 여자였다.
- 9) [답] ③ [해] ㉠'雌雄(자웅)'은 함께 노니는 꾀꼬리 암수 한 쌍을 가리킨다.
- 10) [답] ③ [해] 이 노래에서는 서로 다정히 노니는 암수 꾀꼬리와 대비되어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더욱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 11) [답] 獨 [해] 시적화자의 정서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혼자 남은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이다.
- 12) 답] ③ [[해] 암수 함께 노니는 꾀꼬리는 홀로 남은 시적화자와 대비되는 존재로 자신을 더욱 쓸쓸하게 느끼게 한다.
- 13) [답] ① [해] 꾀꼬리는 시적 화자에게 떠나간 임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이다.
- 14) [답] ② [해] 두 작품 모두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서정 가요이다.
- 15) [답] ⑤ [해] <보기>는 사랑하는 임을 여인 절박한 심정을 잃은 사설시조이다.
- 16) [답] ④ [해] <정음사>는 집 떠난 남편의 안전한 귀가를 빌고 있고 <황조가>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 17) [답]고독 [해] <보기>의 <청산별곡>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에 느끼는 고독감을 노래하고 있다.
- 18) [답]④ [해] ④는 봄밤에 느끼는 애상이 잘 드러나는 작품인 반면 나머지는 임과의 이별에서 오는 슬픔이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 19) [답] ○
- 20) [답] 꾀꼬리
- 21) [답] 獨
- 22) [답] ○
- 23) [답] 개인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꽃 디고 새 님 나니 녹음(綠陰)이 짙었는디, 나위(羅幃) 적막(寂寞)하고 슈막(繡幕)이 뷔여 있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꺾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뒸던고.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식선(五色線) 플터 내여, 금자희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 꺾니와 제도(制度)도 마줄시고. 산호수(珊瑚樹) 지게 우히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브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슴시고. 천리 만리(千里萬里) 길히 뉘라셔 차차 갈고. 니거든 여려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리널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렴(水晶簾)을 거든마리, 동산(東山)의 돌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여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져.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취여, 심산공곡(深山窮谷) 점낫마티 땡고쇼셔.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흔비친 제, 사름은꺾니와 놀새도 굿쳐 있다. 쇼상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고쳐(玉樓高處)야 더욱 날너 므슴허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침(茅簷) 비친 히를 옥누(玉樓)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미치고 취슈(翠袖)를 반만 거더, 일모슈둑(日暮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다른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론 것티 뎡공후(鈿箏篴) 노하 두고, 쑤의나 님을 보려 톱 밧고 비겨시니, □양금(鴛鴦)□도 츄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흐르도 열두 췌, 흔 돌도 설흔 날, 저근덧 칭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꺾음의 뵈쳐이셔 골슈(骨髓)의 췌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다 이병을 엇디허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므든 놀애로 님의 오식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츄려 흐노라.

[나] 작자 미상, <동동(動動)>

㉠정월(正月)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흐논디.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흐올로 녀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츄시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다] 유리왕, <황조가(黃鳥歌)>

㉢떨떨 나는 꾀꼬리는 翩翩黃鳥
암수 서로 정다운데, 雌雄相依
고독한 이 내 신세 念我之獨
닐 더불어 돌아갈까. 誰其與歸

[라] <황진이이 시조>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드냐.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툰여
보닉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1. [가]~[라]의 시적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작품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가] : 사랑이 이렇게 괴로운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임 생각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 ② [나] :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홀로 지내는 고통은 이별의 아픔보다 크답니다.
- ③ [다] : 차라리 사랑을 몰랐다면 좋겠어요. 지나가는 연인들만 보아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면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요.
- ④ [라] : 이렇게 후회스러울 줄 알았다면 그 사람이 떠난다고 할 때, 눈물로 하소연도 해 보고 붙잡고 매달려도 볼 걸 그랬나 봐요.
- ⑤ [가] :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좀더 잘 해 주었다면, 그렇게 무정하게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어찌겠어요. 이미 엮질러진 물건데.....

2. ㉠, ㉡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화자의 분신이다.
- ② 시상을 마무리하는 계기이다.
- ③ 시적 화자의 처지를 표상한다.
- ④ 시적 화자의 정서를 유발한다.
- ⑤ 시적 화자의 정서가 이입된 대상이다.

3. [가]의 시어 가운데 <보기>의 '뫼버들'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보기

뫼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자시는 창(窓)밧기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넵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홍량
의 시조>

- ① 님의 옷 ② 기러기 ③ 별 ④ 양금(鴛鴦)
- ⑤ 범나비

4. ㉠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 ① 구름 빗치 조타 하나 검기될 즈로 한다.
 바람 소리 몹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출 뉘 업기논 물썸인가 하노라. - 윤선도, <오우가>
- ② 초암(草庵)이 적료(寂寥)흔티 벗 업시 혼즈안즈
 평조(平調) 한넙히 백운(白雲)이 절로 존다.
 어느 뉘 이 조흔 뜻을 알리 잇다 하리오. - <김수장의 시조>
- ③ 철령(鐵嶺) 노픈 봉(峰)에 쉬여 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孤臣冤淚)를 비사마 썩여다가,
 구텨야 광명(光明)흔 날빛출 짜라가며 답느니. - <이항복의 시조>
- ④ 구름이 무심(無心)튼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하다.
 중천(中天)에 썩 이셔 임의(任意)로 든니면서
 구텨야 광명(光明)한 날빛출 짜라가며 답느니. - <이존오의 시조>
- ⑤ 창(窓)받기 엇득엇득커늘 님만 너겨 나가 보니
 님은 아니 오고 우스름 달빛체 열 구름 날 속겨다
 못초야 밤일세만정 낫지런들 남 유일 변하여라. - <작자 미상의 시조>

5. ㉡과 같은 발상을 이용하여 표현한 작품은?

- ① 뉘흔 길고길고 물은 멀고멀고
 어버이 그린 뜰은 만코만코 하고하고
 어디셔 외기러기논 울고울고 가느니. - <윤선도의 시조>
- ② 올히 달은 다리 학기 다리 되도록애.
 거문 가마괴 해오라비 되도록애.
 향복무강(享福無疆)하샤 억만세(億萬歲)를 누리소서. - <김구의 시조>
- ③ 천만 리(千萬里) 머느먼 길헤 고흔 님 여희웁고
 너 막음 돌 디 업서 닛가에 안자이다.
 저 물도 내 안 갖하야 우리 밤길 네눗다. - <왕방연의 시조>
- ④ 방 안에 헛는 축(燭)불 놀과 이별하엿관디
 것츠로 눈물 디고 속타는 줄 모로논고.
 더 축(燭)불 날과 갖하야 속 타는 줄 모로노라. - <이개의 시조>
- ⑤ 동지(冬至)스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춘풍(春風) 니불 아티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의 시조>

1. ⑤ 2. ④ 3. ① 4. ④ 5. ⑤

정철, <사미인곡>

- 갈래 : 서정가사, 양반가사
- 주제 : 연군의 정(情)
- 표현 : 본사가 춘하추동의 계절에 따라 전개됨
- 해설 : 이 작품은 송강이 50세 되던 때에 사간원과 사헌부의 논척을 받고 관직에서 물러나 전라도 창평에서 4년간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 작품으로, 뛰어난 우리말 구사와 세련된 표현으로 속편인 <속미인곡>과 함께 가사 문학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한 여인이 남편과 생이별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형식을 빌려 임금을 사모하는 정을 노래했다. 연군지사(戀君之思)인 이 노래는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를 여성으로 택하고, 임금을 임으로 설정하여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를 완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편을 여인의 독백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미인곡>은 멀리 고려 속 요인 <정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의 전통인 부재(不在)하는 임에 대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시리>, <동동>등에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동>

- 갈래 : 고려 속요
- 성격 : 이별가, 송도가(頌禱歌)
- 주제 : 임에 대한 송도(頌禱)와 연모(戀慕)
- 해설 : 이 노래는 우리 문학 최초의 월령체(月令體) 노래로, 분연체 형식과 후렴구의 사용 등 형태적인 면에서 고려 속요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 준다. 이 노래는 일 년 열두 달에 맞춰 한 여인의 정감을 노래하고 있는 연가(戀歌)풍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서사(제 1연)는 공적인 임(임금)에 대한 송도(頌禱)의 성격이 짙어 이 노래가 궁중에서 불러졌던 의식가(儀式歌)였음을 보여 준다. 이런 형식의 노래로는 <동동> 외에 <관등가(觀燈歌)>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가 있고, 민요에 <청상요(靑孀謠)>가 있다. 또, 조선 성종 때의 문인 성현(成俔)이 지은 <전가사십이수(田家詞十二首)>와 같은 한시도 있다. 달거리의 특징은 농경 생활이 반영되어 있으며, 세시기(歲時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유리왕, <황조가>

- 갈래 : 고대 한역 시가
- 성격 : 개인적 서정시
- 제재 : 꾀꼬리
- 주제 :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
- 해설 : 이 노래는 고구려 제 2대 유리왕의 설화에 나오는 노래로 고대인의 이별을 소박하게 노래한 개인적 서정시이며, 우리 나라 최초의 서정시로 소박한 표현과 평이한 주제로 독자에게 강한 호소력을 느끼게 한다. 이 노래의 소재는 '꾀꼬리'라는 자연물이고, 주제는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외로움과 슬픔이다. 즉, 주체할 수 없는 실연의 아픔을 꾀꼬리라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표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슬픔에 젖은 왕은 꾀꼬리 한 쌍이 정다운 모습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순간 왕은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더욱더 커다란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노래의 짜임은 극히 단순하나 대칭 구조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짝을 이루어 노니는 꾀꼬리와 홀로 있는 사람, 하늘을 나는 가벼움과 외로운 심사의 무거움 등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간절함과 깊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황진이의 시조

- 갈래 : 평시조
- 성격 : 감상적, 애상적, 연정가
- 제재 :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
- 주제 :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 해설 : 이 시조는 임을 떠나 보낸 후의 회한(悔恨)을 진솔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애뜻한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하여 정결하게 표현하였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약한 시적 화자의 마음이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 1) 답 ⑤ 해 [가]의 화자는 현실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면, 죽어서 나비가 되어라도 임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⑤와 같은 체념적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2) 답 ④ 해 [나]의 화자는 한겨울 추위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정월의 냇물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얼리거나 녹여 줄 사람이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암수가 서로 정답게 어울려 노는 꾀꼬리를 보며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슬퍼하고 있다. 즉, 두 작품의 화자는 ㉠나 ㉡와 같은 자연물을 보면서 어떤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 ㉡의 공통적인 시적 기능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유발한다는 ④이다.
- 3) 답 ① 해 <보기>의 '뫼버들'은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상징하며, [가]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님의 옷'이다.
- 4) 답 ④ 해 ㉢'구름'은 임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보여 주는 것은 ④의 '구름'으로, 이는 임금을 상징하는 '해'와 신하인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간신)를 의미한다.
- 5) 답 ⑤ 해 달빛이나 별빛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시적 화자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를 '쥐어서 부칠 수 있는' 사물로 변용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발상이 적용된 것은 ⑤로, 시간이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베어 내어 서리서리 넣고, 다시 굵이 굵이 펼 수 있는' 물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 <보기>에서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翼翼 나는 꾀꼬리¹⁾는
 [기] 자유롭게 나는 꾀꼬리
 암수 다정히 즐기는데,
 [승] 꾀꼬리에 대한 부러움
 외로울사 이 내 몸은²⁾
 [전] 자신의 처지 환기
 ㉠뉘와 함께 돌아갈꼬,
 [결] 짝을 잃은 슬픔

翩翩黃鳥(편편황조)
 雌雄相依(자웅상의)
 念我之獨(염아지독)
 誰其與歸(수기여귀)

◆ 배경설화
 고려 제2대 왕인 유리왕 3년 7월, 왕은 골천(鵝川)에 이궁(離宮)을 지었다. 10월에 왕비 송씨(宋氏)가 돌아갔으므로, 왕은 다시 두 여자를 계비로 맞았는데, 하나는 골천 사람의 딸인 화희(禾姬)였고, 하나는 한인(漢人)의 딸 치희(雉姬)였다. 두 여자는 사랑을 다투어 서로 화목하지 못했으므로, 왕은 양곡(涼谷)의 동서(東西)에 두 궁전을 짓고 그들을 각각 살게 했다. 훗날 왕은 기산(箕山)으로 사냥을 나가서 이레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두 여자는 서로 싸움을 벌였다. 화희가 치희를 꾸짖기를, “너는 한(漢)나라에서 온 천한 계집의 몸으로 무례함이 어찌 그렇게 심한가?” 하니, 치희는 부끄럽고 분하여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곧 말을 달려 쫓아갔으나, 치희는 노여워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일찍이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때마침 나뭇가지에 꾀꼬리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왕이 그것을 보고 느낀 바 있어 ‘노래(황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구 풀이] 1) 꾀꼬리 - 화자와 대조되어 정다움과 자유로움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2) 외로울사 이 내 몸은 - 자신의 외로움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나타냄.

보기

a. 탄식하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b. 시상이 대칭적인 구도로 전개되어 있다.
 c. 화자는 인생무상의 비애에 젖어 있다.
 d.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e. 종결부에서는 시적 분위기를 반전시킴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① a, b, c
- ② a, b, d
- ③ a, c, e
- ④ b, c, d
- ⑤ b, d, e

3. ㉠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한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짝 잃은 기러기
- ② 집도 절도 없다.
- ③ 지성이면 감천이다.
- ④ 제 팔자 개 못 준다.
- ⑤ 짚신도 제 짝이 있다.

1. 이 노래를 감상한 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② 화자의 모습을 자연물로 의인화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 ③ 화자는 혼자 돌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쓸쓸하게 여긴다.
- ④ 화자는 누군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⑤ 화자는 꾀꼬리의 상황이 실현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 1) [답] ② [해] 화자의 상황을 독자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작품의 분위기, 어조, 표현 방법 등에 주목해야 한다. ②의 경우 '꾀꼬리'는 화자의 처지와 대립되는 것으로, 화자 자신을 의인화한 대상으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 [답] ② [해] 이 노래에서 화자는 짝을 잃어 외로운 자신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는 중이고, 시상은 정답게 노는 꾀꼬리(1,2행)와 외로운 화자(3,4행)가 대칭 구도를 이루며 전개되어 있으며, '꾀꼬리'라는 자연물을 등장시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인생을 무상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종결부에서 느낄 수 있는 여운도 슬픔의 지속이지 분위기의 반전으로 볼 수 없다.
- 3) [답] ① [해] ㉠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화자의 슬픔이 고조되어 있다. 따라서 '몹시 외로운 홀아비나 홀어미 같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인 ①이 이와 의미가 통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떨떨 나는 꾀꼬리는 翩翩黃鳥
 암수가 서로 정다운데 雌雄相依
 외로운 이 내 몸은 念我之獨
 뉘와 함께 돌아갈꼬 誰其與歸

- 유리왕, <황조가(黃鳥歌)>

[1] 1~2행: 꾀꼬리의 다정한 모습 / [2] 3~4행: 화자의 외로움

[나]

그리워라 그리워도 볼 수 없으니

長相思 思不見

마음은 종이 연인 양 바람에 펄럭이네

心如紙 驚風中轉

자리라면 말아두고 돌이라면 굴러 낼 수 있으련만

有席可捲 石可轉

이 마음에 맺힌 시름 언제나 풀릴 건가

此心鬱結何時變

그리운 임 아득히 하늘가에 계시는데

所思遠在天之陬

구름 긴 하늘 아래 푸른 버들 늘어졌네

雲天綠樹晴悠悠

끊임없는 근심에

悠悠不盡愁

홀로 앉아 공후를 타네

獨坐彈箏篴

공후도 하소연하는 듯 우는 듯,

箏篴如訴復如泣

연주가 끝나니 어느 샌가 비단 적삼은 눈물에 젖네

彈罷不覺羅衫濕

바라건데 쌍쌍이 날아가는 □새□가 되어

願爲雙飛鳥

임의 창 앞에 서고 싶구나

向君牕前立

바라건데 밝은 달빛 되어

願爲明月光

임의 휘장 뚫어 비취들고 싶구나.

穿君帷箔入

슬픈 노래 잠 못 드니 밤은 왜 이리 긴지

悲歌無寐夜何長

꿈 속에도 요산 남쪽 건너지 못하였네

魂夢不渡遼山陽

길이 그리워하니 공연이 애간장만 끊어지는구나

長相思空斷腸

- 성현, <장상사(長相思)>

[1] 1~6행: 떠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2] 7~10행: 슬픔을 달랠 길 없어 공후를 연주함

[3] 11~14행: 임을 잊지 못하는 마음 [4] 15~17행: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다]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가 되어

봄이 다 지나가도록 떠나서 살지는 말자 했더니

인간이 말이 많고 조물주도 시기하여

새 정을 다 퍼지 못하고 애달프지만 이별이라

맑은 강에 놀던 원앙 울면서 떠나는 듯

거센 바람에 놀란 벌과 나비 가다가 돌아보는 듯

석양은 다 저 가고 매어둔 말은 졸고 있을 때

나삼(羅衫)을 부여잡고 침울한 마음으로 이별한 후에

슬픈 노래 긴 한숨을 베풀 삼아 돌아오니

이제 이 님이야 생각하니 원수로다

간장이 모두 썩으니 목숨인들 보전하겠는가

몸에 병이 드니 모든 일에 무심해져

서창을 굳이 닫고 어색하게 누워 있으니

꽃 같은 얼굴에 달 같은 모습은 눈 앞에 삼삼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거처하는 방은 침변(枕邊)¹⁾이 여기

연잎에 이슬이 맺히니 이별의 눈물을 뿌리는 듯

버들막에 연기 끼니 맺힌 한을 머금은 듯

적적한 산에 달은 밝고 두견새는 슬피 우는데

슬프구나 저 새 소리 내 맘 같은 두견새라

[A]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에 간신히 드니

마음 속으로 품고 있던 우리 님을 꿈속에서 잠깐

천 가지 시름 만 가지 한(恨) 못다 이루는 부질없는

아리따운 미인 곁에 얼핏 앉았는데

어화 황홀하다 꿈을 생시로 삼고 싶구나

잠자리를 건어차고 바빠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 긴 산 첩첩이 천리안을 가리웠고

흰 달은 창창하여 님을 향한 마음에 밝게도 비취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찌 그리 못 보시고

비 내리는 머나먼 길을 멀다고 하는 것은 이런 때를 두고

이르는 것이구나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1] 1~11행: 임과의 이별 후에 생겨난 원망의 감정 [2]

12~19행: 이별로 인해 생겨난 한(恨)으로 잠을 못 이룸.

[3] 20~24행: 꿈에서 임을 만남. [4] 25~27행: 꿈을 꾸고

난 뒤의 허망함 [5] 28~30행: 임이 그리워 애달픈 마음

[어휘 풀이] 1) 침변(枕邊) - 베갯머리.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 (다)는 이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나), (다)에는 화자와 임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이 드러나 있다.
- ④ (가),(나),(다)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나),(다)에는 화자의 정서와 조용하는 배경 묘사가 나타나 있다.

2. 밑줄 친 시어의 시적 기능과 의미가 (나)의 '새'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님 그린 상사몽(想思夢)이 실솔(蟋蟀)의 녀시되야
추야장(秋夜長) 깃픈 밤에 님의 방에 드러다가
날 닛고 깃피든 즈을 썬와 볼까 흐노라.
- 박효관의 시조
- ② 지당에 비 뿌리고 양류에 내 깨인 제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였난고
석양에 짝 잃은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노매
- 조현의 시조
- ③ 청산은 내 뜻이오 녹수는 님의 정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니저 우리 예어 가노고.
- 황진이의 시조
- ④ 간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 말가
낙락장송이 다 기울어 가노매라.
하물며 못 다 핀 꽃이야 날러 무엇 하리오.
- 유응부의 시조
- ⑤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무쳐세라.
시비(柴扉)를 여지마라, 날 촛즈리 뉘 이시리.
밤등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그 벗인가 하노라.
- 신희의 시조

3. [A]를 영상물로 만들고자 제작 회의를 할 때, 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이 거쳐하는 방 안을 주된 무대 배경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아.
- ② 주인공이 꿈 속에서 바라본 산 주변에는 구름이 자욱히 끼어 있어야겠지.
- ③ 주인공은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겨우 잠이 드는 것으로 해야겠어.
- ④ 주인공이 새소리를 들으며 더욱 슬픔에 잠기는 모습이 부각 되도록 해야겠어.
- ⑤ 주인공이 꿈 속에서, 자신이 그리워하던 사람 곁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하면 좋겠어.

4. (가),(나),(다)의 화자가 대화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서로 정답게 노니는 꾀꼬리를 보니 이별한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슬프군요.
- ② (나):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 임에 대한 그리움을 악

기 연주로 풀곤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리운 건 마찬가지죠.

- ③ (다): 솔직히 저는 임과 이별하고 난 후 임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별하게 된 것도 다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④ (나): 요즘 제 생활은 '오매불망(寤寐不忘)'과 '전전반측(輾轉反側)'이란 두 가지 말로 요약됩니다. 그리워 잠 못 든다는 말을 정말 실감합니다.
- ⑤ (다): 심지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몸에 병이 든 상태여서 모든 일에 무심해질 뿐입니다.

1. ㉓ 2. ㉑ 3. ㉒ 4. ㉓

※ 유리왕, <황조가>

- 주제 :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
- 해제 : 작자와 연대가 알려진 작품으로서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이다. 고구려 유리왕 설화를 배경 설화로 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임과 이별한 이후의 상황에서, 꾀꼬리들이 나뭇가지에 모여든 모습을 보고서 자신의 고독한 처지와 대비가 된다고 느껴 그 슬픔을 읊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 구성
 - [1] 1~2행: 꾀꼬리의 다정한 모습
 - [2] 3~4행: 화자의 외로움

※ 성현, <장상사(長相思)>

- 주제 :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 해제 : 임이 곁에 없는 상황에서, 임이 보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마음으로 인한 간절한 그리움을 호소한 한시이다.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마치 종이 연과 같다고 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차라리 돛자리라면 돌돌 말아두고, 돌이라면 굴러 낼 수 있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하고 있다. 한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형식상의 파격이 드러나고 있으며 약기를 연주하면서 슬픔을 달래려고 하는 모습, 임이 그리운 나머지 새나 달빛이 되어서라도 임에게 가고 싶은 심정 등이 이 작품에 담겨 있다.
- 구성
 - [1] 1~6행: 떠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 [2] 7~10행: 슬픔을 달랠 길 없어 공후를 연주함
 - [3] 11~14행: 임을 잊지 못하는 마음
 - [4] 15~17행: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주제 : 임에 대한 상사(相思)의 정(情)
- 해제 :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즉 상사(相思)의 정(情)을 노래한 작품이다. 한 서생(書生)이 봄날 야유원(冶遊園)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 춘흥(春興)을 나눈 후 이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별로 인한 한(恨)과 원망의 감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잠이 들어 꿈에나마 임과 재회하여 즐거웠지만 꿈에서 깨자 다시 임에 대한 그리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성
 - [1] 1~11행: 임과의 이별 후에 생겨난 원망의 감정
 - [2] 12~19행: 이별로 인해 생겨난 한(恨)으로 잠을 못 이룸.
 - [3] 20~24행: 꿈에서 임을 만남.
 - [4] 25~27행: 꿈을 꾸고 난 뒤의 허망함
 - [5] 28~30행: 임이 그리워 애닦은 마음

1) ㉓ ㉑

㉓ [나]의 '그리운 임 아득히 하늘가에 계시는데'라는 구절이라든가 [다]의 '구름 낀 산 첩첩이 천리안을 가리웠고', '비 내리는 머나먼 길을 멀다고 하는 것은 이런 때를 두고 이르는 것이구나' 라는 구절에서 화자와 임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을 표출하고 있다. ㉑ ㉒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종이 연에 빚대어 표현하고 있는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㉒ [가],[다] 어디에서도 이별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㉒ [다]에서는 '두견새'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한편 [나]에서는 '공후도 하소연하는 듯 우는 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가]의 황조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이다. ㉓ [다]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다]의 '맑은 강에 놀던 원앙 울면서 떠나는 듯/ 거센 바람에 놀란 벌과 나비 가다가 돌치는 듯 / 석양은 다 저 가고 매여둔 말은 즐고 있을 때'와 같은 배경이라든가 '연잎에 이슬이 맺히니 이별의 눈물을 뿌리는 듯 / 버들막에 연기 끼니 맺힌 한을 머금은 듯 / 적적한 산에 달은 밝고 두견새는 슬피 우는데'라는 배경은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고 있다.

2) ㉓ ㉑

㉓ [나]의 '새'는 임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무엇'이 되어 임의 곁으로 가고 싶다고 할 때의 '무엇'에 해당한다. ㉑ 의 '실술의 뉘' 역시 이러한 기능과 의미를 갖고 있다. ㉒ ㉓의 '갈매기'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에 해당하며, ㉓의 '녹수'는 '임의 정(情)'을 빚댄 소재, ㉒의 '낙락장송(落落長松)은 충신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그리고 ㉓의 '일편 명월'은 자연을 대유한 소재에 해당한다.

3) ㉓ ㉑

㉓ '잠자리를 건너치고 바빠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 낀 산 첩첩이 천리안을 가리웠고/ 흰 달은 창창하여 님을 향한 마음에 밝게도 비취 주는구나' 라는 구절에 주목하면, 구름 낀 산을 바라본 것은 꿈 속에서가 아니라 잠에서 깬 이후이므로 ㉒는 적절하지 않다.

4) 답 ③

㉮ [다]의 화자가 '이제 이 님이야 생각하니 원수로다/간장이 모두 썩으니 목숨인들 보전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별한 임을 원망하고는 있으나, 이별하게 된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다. 단지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로다'라고 하며 이별로 인한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 ① 서로 정다운 께꼬리는 [가]의 외로운 화자와 대비되어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킨다. ② [나]의 화자는 홀로 공후를 연주하는데, 그 곡조가 무언가를 하소연하는 듯 하고 우는 듯하다고 하였다. 이는 임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슬픔을 상징한다. ④ [나]의 '슬픈 노래 잠 못 드니 밤은 왜 이리 긴지' 라는 구절에 주목하면, [나]의 화자는 '오매불망' 내지 '전전반측'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다]의 '몸에 병이 드니 모든 일에 무심해져'라는 구절에 주목하면, [다]의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몸에 병이 든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德(덕)이란 공(공)에 받치고 福(복)이란 림(림)에 받치고,
德(덕)이여 福(복)이라 호(호)를 나(나)스(스)라 오(오)소(소)이다.
아(아) 動(동)動(동)다(다)리.

正(정)月(월)스 나(나)릿(릿) 므(므)른(른) 아(아) 어(어)저(저) 녹(녹)저(저) ㅎ(ㅎ)논(논)디.
누(누)릿(릿) 가(가)운(운)디(디) 나(나)곤(곤) ㉠(㉠)물(물)하(하) ㅎ(ㅎ)울(울)로(로) 널(널)서.
아(아) 動(동)動(동)다(다)리.

二(이)月(월)스 보(보)로(로)매(매), 아(아) 노(노)피(피) 현(현) 燈(등)스(스) 불(불) 다(다)호(호)라.
萬(만)人(인) 비(비)취(취)실(실) 즈(즈)시(시)샷(샷)다.
아(아) 動(동)動(동)다(다)리.

三(삼)月(월) 나(나)며 開(개)호(호) 아(아) 滿(만)春(춘) 들(들)웠(웠)고(고)지(지)여.
낙(낙)미(미) 브(브)를(를) 즈(즈)슬(슬) 디(디)녀(녀) 나(나)샷(샷)다.
아(아) 動(동)動(동)다(다)리.

四(사)月(월) 아(아)니(니) 니(니)저(저) 아(아) 오(오)실(실)서 ㉡(㉡)㉢(㉢)[곳(곳)고(고)리(리)새(새)]여.
므(므)슴(슴)다 錄(녹)事(사)니(니)몬(몬) 넷(넷) 나(나)를(를) 닛(닛)고(고)신(신)디.
아(아) 動(동)動(동)다(다)리.

五(오)月(월) 五(오)日(일)에 아(아)의(의) 수(수)릿(릿)날(날) 아(아)춤(춤) ㉣(㉣)藥(약)은(은)
즈(즈)문(문) 힐(힐) 長(장)存(존)호(호)살(살) 樂(약)이(이)라(라) 받(받)줍(줍)노(노)이다.
아(아) 動(동)動(동)다(다)리.

六(유)月(월)스 보(보)로(로)매(매) 아(아)의(의) 별(별)해(해) 보(보)론(론) ㉤(㉤)빛(빛) 다(다)호(호)라.
㉥(㉥)도(도)라(라)보(보)실(실) 니(니)를(를) 적(적)곰(곰) 좇(좇)니(니)노(노)이다.
아(아) 動(동)動(동)다(다)리.

七(칠)月(월)스 보(보)로(로)매(매) 아(아)의(의) 百(백)種(종) 排(배)하(하)야(야) 두(두)고,
니(니)를(를) ㅎ(ㅎ) ㉦(㉦)녀(녀)가(가)져(져) 願(원)을(을) 비(비)습(습)노(노)이다.
아(아) 動(동)動(동)다(다)리.

八(팔)月(월)스 보(보)로(로)매(매) 아(아)의(의) 嘉(가)俳(배) 나(나)리(리)마(마)르(르),
㉧(㉧)니(니)를(를) 뵈(뵈)셔(셔) 녀(녀)곤(곤) 오(오)늘(늘)났(났) 嘉(가)俳(배)샷(샷)다.
아(아) 動(동)動(동)다(다)리.

九(구)月(월) 九(구)日(일)에 아(아)의(의) 樂(약)이(이)라(라) 먹(먹)는 黃(황)花(화)
㉨(㉨)고(고)지(지) 안(안)해(해) 드(드)니(니), 새(새)서(서) 가(가)만(만)호(호)애(애)라.
아(아) 動(동)動(동)다(다)리.

十(시)月(월)에 아(아)의(의) 저(저)미(미)연(연) ㉩(㉩)브(브)룻(룻) 다(다)호(호)라.
것(것)거(거) 브(브)리(리)신(신) 後(후)에(에) 디(디)니(니)실(실) ㅎ(ㅎ) 부(부)니(니) 업(업)스(스)샷(샷)다.
아(아) 動(동)動(동)다(다)리.

十一(십)一(일)월(월)스 보(보)당(당) 자(자)리(리)에 아(아)의(의) 汗(한)衫(삼) 두(두)퍼(퍼) 누(누)워
㉪(㉪)슬(슬)호(호)스(스)라(라)온(온)디(디) ㉫(㉫)고(고)우(우)닐(닐) 스(스)식(식)음(음) 널(널)서.
아(아) 動(동)動(동)다(다)리.

十二月스 분(분)디(디)남(남)궤(궤)로(로) 갓(갓)곤(곤), 아(아)의(의) 나(나)술(술) 盤(반)잇(잇) ㉬(㉬)저(저) 다(다)호(호)라.
니(니)의(의) 알(알)궤(궤) 드(드)러(러) 얼(얼)이(이)노(노)니, ㉭(㉭)소(소)니(니) 가(가)재(재)다(다) 므(므)르(르)습(습)노(노)이다.
아(아)의(의) 動(동)動(동)다(다)리.

1.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요풍의 고려 속요
- ② 조선 초에 문자로 기록
- ③ 13연으로 분연된 이별가
- ④ 최초의 월령체 노래
- ⑤ 교훈적 성격의 노래

2.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서사 문학사에서 월령체의 효시로 꼽힌다.
- ② 화자의 정서를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개인적 정서와 공적 정서가 혼합되어 드러나고 있다.
- ④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절제된 감정 표현이 뛰어나다.
- ⑤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한 여성적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3. 다음 중, 이 노래에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 ①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
- ②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 ③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괴로움
- ④ 임과의 원하지 않는 이별의 고통
- ⑤ 임의 외면으로 인한 슬픔과 외로움

4. 이 노래의 지배적인 미의식은?

- ① 우아미 ② 비장미 ③ 비애미
- ④ 골계미 ⑤ 숭고미

5. 이 노래의 형식적 특징들을 지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체를 서사와 본사로 나눌 수 있다.
- ② 13연으로 구성된 연장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월령체 노래이다.

- ③ '아으 動動다리'의 '動動'은 복소리를 본뜬 의성어로 볼 수 있다.
- ④ 대체로 우리 민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음보의 율격을 유지하고 있다.
- ⑤ 매 연의 후렴구는 각 연을 분절시키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키는 기능이 있다.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쓰쳤는고.

- 허난설헌, '규원가'

- ④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ㄸ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 '청산별곡'
- ⑤ 날리는 엇디 살라 ㅎ고 / 버리고 가시리잇고
설은 님 보내옵노니 / 가시는 ㄸ 도서 오쇼셔
- '가시리'

6. 이 노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모의 감정을 절제된 표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임에 대한 연모와 송축의 정을 잘 조화시키고 있다.
- ③ 자아의 고독한 운명을 사물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
- ④ 일 년 열두 달에 맞추어 한 여인의 연정을 노래하고 있는 연가풍의 노래이다.
- ⑤ 버림받은 운명에 대한 체념과 임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절절하게 배어 있다.

10. 이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임에 대한 정성이 지극한 여인이다.
- ②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다.
- ③ 임과의 오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 ④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 ⑤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를 임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7. 이 노래의 감상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월령체가로 된 다른 작품들을 찾아서 비교해 본다.
- ② 우리 나라 고유의 세시 풍속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③ 무곡(舞曲)이라는 점에서 춤은 어떠했는지 조사해 본다.
- ④ 엇나간 사랑의 운명을 담고 있는 다른 노래들을 찾아 비교해 본다.
- ⑤ 3음보라는 점에 착안하여 민요의 가락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조사해 본다.

11. 이 노래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의 모습은?

- ① 자신을 버림받은 처지로 생각하고 있다.
- ② 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③ 임 없는 명절은 명절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 ④ 사랑의 인연이 임에게 닿지 않음을 한탄하고 있다.
- ⑤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간절히 빌고 있다.

8. 이 작품 전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시의 세시 풍속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② 시적 화자는 여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의 정이 어우러져 있다.
- ④ 체념과 현실 도피의 감정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 ⑤ 상징적인 소재들을 통하여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12. 시적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보기>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훤훤 나는 꾀꼬리는
암수 다정히 노니는데,
외로울사 이 내 몸은
누와 함께 돌아가리.

- 유리왕, '황조가'

- ① 1연 ② 3연 ③ 5연 ④ 7연 ⑤ 11연

9.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율보미 본뉜 쫓 디나가느니.
어느 나리 이 도라갈히오.
- 두보, '절구'
- ② 구름 찢 벗뉜도 찢 적이 없건마는,
서산에 ㅎ지다 ㅎ니 눈물겨워 ㅎ노라.
- 조식의 시조
- ③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디,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13. 이 노래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시어들이리만 묶인 것은?

- ① 6월 - 빗, 9월 - 황화(黃花), 11월 - 汗衫(한삼)
- ② 6월 - 빗, 10월 - 벚꽃, 12월 - 저

- ③ 7월 - 백중, 8월 - 가배, 10월 - 보름
- ④ 8월 - 가배, 9월 - 황화(黃花), 12월 - 분디남
- ⑤ 10월 - 보름, 11월 - 汗衫(한삼), 12월 - 盤(반)

14. 이 노래의 2연 ~ 13연 중, 화자의 정서가 <보기>와 가장 가까운 연은?

보기

인적(人跡) 끊인 곳, / 홀로 앉은 /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 / 빈 골 골을 되돌아올 뿐.

- 박두진, <도봉>

- ① 2연 ② 4연 ③ 6연
- ④ 8연 ⑤ 13연

15. 이 노래의 각 연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3연 - 임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 ② 5연 -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고 있다.
- ③ 8연 - 임과 함께 지내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④ 11연 -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 ⑤ 13연 - 떠난 임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6. 각 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1연 : 임금에 대한 송도의 성격이 짙다.
- ② 2연 : 자연물과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여 표현하였다.
- ③ 3연 : 비유에 의해 임의 모습을 송축하였다.
- ④ 5연 : 오지 않는 임에 대한 변함 없는 신뢰를 표현하였다.
- ⑤ 6연 : 세시 풍속을 소재로 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7. 각 연의 소재와 세시 풍속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2월 - 燈(등)사불 - 연등
- ② 5월 - 아츰 藥(약) - 한식
- ③ 6월 - 빗 - 유두
- ④ 7월 - 백중(百種) - 백중
- ⑤ 8월 - 가배 - 한가위

18. 이 노래의 각 연과 세시 풍속을 잘못 연결한 것은?

- ① 3연 - 연등(煙燈) ② 6연 - 단오(端午)
- ③ 8연 - 유두(流頭) ④ 9연 - 추석(秋夕)
- ⑤ 10연 - 중양절(重陽節)

19. <보기>의 ㉠와 ㉡가 갖는 의미와 유사한 시어를 찾아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보기

내 마음 베어 내어 저 ㉠달을 만들고자.
구만 리 장천에 번드시 걸려 이서.
고온 ㉡일 계신 곳에 가 비취어나 보리라.

- 정철

- ① ㉠ : 정월 - 나릿물 ② ㉠ : 3월 - 들윗곳
- ② ㉠ : 2월 - 燈(등)사불 ③ ㉠ : 3월 - 들윗곳
- ③ ㉠ : 4월 - 곳고리새 ④ ㉠ : 5월 - 藥(약)
- ④ ㉠ : 4월 - 곳고리새 ⑤ ㉠ : 2월 - 燈(등)사불
- ⑤ ㉠ : 5월 - 藥(약) ⑥ ㉠ : 2월 - 燈(등)사불

20.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6연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국화야, 너는 어이 三月東風(삼월 동풍) 다 보내고
落木寒天(낙목 한천)에 네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傲霜孤節(오상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 이정보

- ② 뭇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자시는 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 곧 나가든 나인가 여기소서.

- 홍량

- ③ 千歲(천세)를 누리소서 萬歲(만세)를 누리소서.
무쇠 기둥에 꽃 피어 열매를 여러 번 따들이도록 누리소서.
그 밖의 億萬歲(억만세) 외에 또 만세를 누리소서.

- 작자 미상

- ④ 冬至(동지)사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春風(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퍼리라.

- 황진이

- ⑤ 사랑 거짓말이, 임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빈단 말이 귀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보이리.

- 김상용

21. 다음 시구 중,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을 함축하고 있는 것은?

- ① 도라 보실 니를 ② 나수라 오소이다
- ③ 어저 녹저 흐논딕 ④ 니를 혼 딕 녀가져
- ⑤ 오실셔 곳고리새여

22. 다음 중, 시적 화자를 비유한 소재는?

- ① 燈(등)스불 ② 들윗고지 ③ 곳고리새
- ④ 藥(약) ⑤ 빛

23. 이 노래와 <보기>의 노래의 화자가 '임'에 대해 가진 공통된 자세는?

보기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날러는 엇디 살라 흐고 /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잡스와 두어리마는 / 선흐면 아니 올세라.
 설은 님 보내옵나니 나는 / 가지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 <가시리>

- ① 임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다.
- ②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 ③ 매사를 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
- ④ 임이 없는 현실을 살아갈 각오를 보이고 있다.
- ⑤ 이별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 의지로 극복하고 있다.

24. 다음 중,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시어는?

- ① 빛 ② 황화 ③ 브룻
- ④ 한삼 ⑤ 저

25. ㉠~㉥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 몸 ② ㉡ 곳고리새 ③ ㉢ 빛
- ④ ㉣ 브룻 ⑤ ㉤ 저

26. ㉠을 바라보는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러움 ② 부러움 ③ 설레임
- ④ 괴로움 ⑤ 반가움

27. 밑줄 친 시어 중, ㉠과 시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 ①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애 살어리랏다. /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애 살어리랏다.
- <청산별곡>
- ② 거북아, 거북아, / 머리를 내어라. / 내놓지 않으면, / 구워서 먹으리.
- <구지가>
- ③ 鴛鴦(원앙)錦金 버혀 노코 五五色(오색)線線(선) 플터 내여, 금자희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手(수)品(품)은 ㄱ니와 制(제)度(도) 도도 ㄱ즐시고.
- 정철, <사미인곡>
- ④ 三冬(삼동)에 뵈옷 입고 巖穴(암혈)에 눈비 마자 / 구름낀 벗뉘도 췌 적이 업건마는 / 西山(서산)에 히지다 흐니 눈물겨워하노라.
- 조식
- ⑤ 뿔버들 곱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 자시는 창 밧기 심거 두고 보쇼셔. / 밤비에 새넛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 기쇼셔.
- 홍량

28. ㉠ ~ ㉤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 나에게 사랑을 줄 임을
- ② ㉡ : 임을 모시고 지내야만
- ③ ㉢ : 꽃이 집안에 피니,
- ④ ㉣ : 슬픈 일이다
- ⑤ ㉤ : 임은 영원히 가셨구나.

29. 이 노래의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간단히 서술하시오.

30.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담겨 있는 시구를 찾아 3어절로 쓰시오.

을 엿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벼라보라.

- 정철, <사미인곡>

31. 9연과 유사한 정서적 구조로 된 짧은 글을 하나 지으시오.

35. 7연의 '벼론 빛'과 시적 의미가 상통하는 비유어 두 개를 찾아 쓰시오.

32. 다음 밑줄 친 말 중, ◎의 '손'과 의미가 통하는 시어를 쓰시오.

보기

三三五五(삼삼오오) 冶遊園(야유원)의 새 사람이 나 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 업시 나가 잇어, 白馬金鞭(백마 금편) 으로 어터어터 머무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나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랴. 因緣(인연)을 긋쳐신들 싱각이야 업슬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든. 열 두 쟤 김도 길샤 설흔 날 支離(지리)하다. 玉窓(옥창)에 심근 梅花(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즌 비는 무스 일고. 三春花柳(삼춘화류) 好時節(호시절)에 景物(경물)이 시름업다. 가을 들 방에 들고 蟋蟀(실슬)이 床(상)에 올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타.

- 허난설헌, <규원가>

33. 이 노래에서 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어 둘을 찾아 쓰시오.

34. 이 노래에서 화자와의 관계가 <보기>의 밑줄 친 시어와 유사한 것을 3연과 4연에서 하나씩 찾아 쓰시오.

보기

기나긴 밤의 좁은 엿디 자시는고.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흥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름 올가. 내 마음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쟈말고. 잡거나 밑거나 높픈 뉘히 올라가니 구름은 ㄱ니와 안개는 무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나 일월(日月)